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7

▶한줄요약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인도에서 만난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와 함께 종정에게 편지를 보냈던 천추사원 조실스님을 만나 화재로 죽었다는 금어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금어의 죽음과 그 아들의 존재를 확인

뉴델리에서 며칠 ①

사원은 조금 높은 둔덕 위에 지어져 있었다. 입구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았다. 차에서 내려 사원을 올려다보았다. 그 위용이 대단했다. 정말 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언젠가 런던에 있는 휴 사원의 모습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 사원을 도안한 사람이 짓지 않았을까 할 만큼 절묘하게 닮았다. 허공 높이 올려진 지붕.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단단한 벽들. 지붕은 하늘로 대담하게 솟아올랐는데 그 자제가 벽옥인지 대리석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작은 기둥들이 빙둘러서듯 지주를 감싼 모습이나 날개 달린 새들과 말하는 것 같은 원형 지붕은 마치 단단한 기둥 위에 올라앉은 피조물처럼 보였다. 어떤 장인이 값비싼 건축자재들로 저러한 모습을 일구었는지 나는 그저 아름답구나 하는 탄성만 연신 내질렀다.

-정말 크고 아름답군요?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지요?

-우리의 전통 사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네요?

-성당과 절 그 중간 사이…?

송 서화가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는 그렇게 대답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신심이 절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랬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사원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햇볕을 받은 창문은 찬란한 별빛처럼 눈에 부셨다. 여느 절과는 달랐다. 사천왕상들이 먼저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보였다. 커다란 두 개의 창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는데 한쪽은 천국의 무사들이, 한쪽은 지옥의 지배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었다. 그 창문으로 마침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발광체였다. 엄청난 빛무리가 반대편 창문을 향해 쏟아지는데 일다원융이라고 해야 할까. 천국과 지옥이 함께 얼크러지는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어질 현기증까지 느꼈다.

절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은 극락이다. 그런데 극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서구문명 그것도 기독교적 사고에 길들어 있기 때문일까?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서구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만은 분명하다. 분명히 저 그림을 맡았던 화가는 서구적 신식문물에 길든 사람이 분명해 보인다.

-완전히 한국의 절과는 다르네요. 이건 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당도 아니고…. 조선식 문양으로 짜인 문이 아니라 그림으로 수놓아진 창문과 대리석벽? 저 그림들, 누가 그린 겁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그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바로 제 아들에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안 금어가 들어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금어가 그린 그림?

내가 알기에 금어라고 한다면 전통적 기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언젠가 평생을 불화에 바친 금어를 취재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안 것이지만 본시 불화의 세계에는 불통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 체형과 격식이 있었다. 단청장만 하더라도 문화(文畵)라 하는 초본(草本)이 있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그림본이라는 게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금어는 그림을 그릴 때 초본을 밑에 놓고 모사한다. 그런 다음 색을 입힌다. 그러므로 사찰의 그림이 하나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 그림들은 여느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체형과 격식에 따라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 전승 발전되어 온 도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그만의 독특한 양식과 기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법통을 정면으로 거부해 버린 그림이었다. 전통적인 기법에서 완벽히 탈피한 그림. 그래서 더 서구적, 나아가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것인지 몰랐다. 분명히 전통적 불화를 그리던 금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그림 중에서도 서양화를 제대로 전공한 화가의 그림임이 분명했다. 금어의 나이가 육십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의 아들이 이제 이십 대 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의 영향을 받았다? 종정이 보았다는 젊은 청년. 그 청년이 바로 그가 아닌가.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아버지를 죽였을지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았다.

-저 그림들을 그린 금어 말입니다. 육십이 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전통적 기법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요.

금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는지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말은 들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그렇게 죽기에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만이 아니라 이 사원설계에도 참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절을 설계할 때부터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늙은 금어의 그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혹시 그분의 아들도 그림을 전공한 사람인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긴 하였지만, 건축학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잖아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그렇군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쑥 들어갔다.

-천추라. 천국의 가을! 그러고 보니 천국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네.

송 서화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들어가 보십시다.

오오스마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좀 더 빨리했다.

사원 안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손으로 벽을 쓸어보았다. 분명 흰 돌이었다. 흰 돌들이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틈이 없다. 하나하나의 돌들이 모여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하나의 연속체로 결합한 것처럼 보였다. 도저히 사람의 솜씨 같지 않았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돌덩어리 같았다. 그 단일한 실체들이 연속적으로 사원 안까지 이어졌는데 한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붉은색이다. 금니선(金泥線)이 둥근 원으로 물결쳐 흘러간다. 휘돌아 뻗어나가는 선들이 전통 문양의 초본에 의한 것이 아니다. 흐르고 있지만 강약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매듭이 맺혔다 풀리면서 끝없이 이어진다. 한 가닥이던 선이 둘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이윽고 셀 수 없어지더니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그 위로 일어나는 그 무엇. 서기라고 할까? 감이 범치 못할 기운. 서기가 둥근 원으로 흘러 들어간다. 둥근 원들이 서기로 꽉 차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생생한 기운…. 탄생과 소멸…. 연생(緣生)과 연멸(緣滅)….

그렇게 이어지던 벽이 어느 한순간 뚝 끊어지면서 정원이 나타나자 나는 꼭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서구적 형식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 뭘 본 것일까?

이내 본당이 나타났다. 내가 본 벽화는 본당에 들기 전에 거쳐야 하는 건물에 그려진 그림이었던 것 같았다. 나무가 어우러져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이 눈부셨다.

-저 스님.

지나가는 스님에게 조실스님을 좀 만나러 왔노라고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스님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본당 앞을 지나가는 사미를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불렀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조실스님 돌아오셨느냐고 물었다.

다가온 사미는 찢어진 눈으로 일별하고는 탐탁찮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오스마 기자를 아는 눈치였다. 자주 찾아오자 그런 것 같았다.

내가 조실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일부러 왔다고 하자 그제야 조실스님이 조금 전에 돌아왔다며 앞장을 섰다.

우리를 인도해 간 사미가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어우러진 그늘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본당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별채였다. 꽃나무가 심어진 곁에 기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조각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고 선 모양이었는데 동양인이 아니고 서양 사람이었다. 신부복을 입은 조각상이었다.

-조실스님 뵙자고 합니다.

사미의 소리에 어느 한순간 쉰 듯한 음성이 방 안에서 달려 나왔다.

-무슨 일이냐?

-손님들이 왔기에 모셔 왔습니다.

-손님?

잠시 후 사미에 의해 문이 열렸다. 방 안의 스님이 우리를 훑어보았다. 중늙은이였다. 키가 작았고 몸이 비대했다. 햇살 때문일까 안경알이 파르스름하게 빛났다. 콧등이 유난스레 솟아올랐다. 눈썹이 뭉툭 먹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시커멨다. 꽉 다문 입술이 고집깨나 있어 보였다.

우리는 그에게 우선 묵례를 보냈는데 생긴 모습이 고상하지를 못해서인지 이 사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실 같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에게 한국에서 나온 기자임을 밝혔다. 더 말하지 않아도 왜 기자들이 자신을 찾는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다가 서 있는 사미에게 일렀다.

-가서 차 좀 내오너라.

-네.

-들어오세요.

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송 서화가와 심 작가, 오오스마가 뒤따라 들어왔다.

실내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고 아늑했다. 맞은편 벽에 달마도가 걸렸고 경전 한 권이 올라앉은 좌상 하나가 보였다. 그 위에 목탁이 놓여 있었다. 이쪽 벽으로 승복 한 벌이 걸려 있을 뿐 참으로 장식이라곤 없는 방이었다.

-앉으시오.

조실이 앉기를 권하였다.

-한국에서 나오셨다고?

넷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야 조실이 물었다.

-갑작스럽겠습니다만 한국의 종정 예하께서 이곳에서 보내신 전문을 보시고….

-아 아 그렇구먼요.

-그래 왔습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지라…. 내가 메일을 보낸 것이외다.

-제가 듣기에는 금어스님이 불에 타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렇소이다.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맞소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뭐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조실스님이 대답했다.

-그럼 그 아들은 지금?

조실스님이 머리를 내저었다.

-여기 없소이다.

-그럼?

-평소 스리나가르에 묻혀 있는 지혜의 검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나 하고 있소. 제 아비와 이곳 불사를 하면서도 그곳에 자주 드나들었으니까.〈계속〉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7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2년 12월 31일~2023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통학가능)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3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3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